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분산화된 임상시험(DCT), COVID-19 확산으로 부각



CONTENTS

01

포커스

- 분산화된 임상시험(DCT), COVID-19 확산으로 부각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FDA, 디지털헬스 우수센터 출범 4
 - 미국 pfizer, 실사용 증거를 사용하여 lbrance에 대한 확대 승인 획득 4
 - 미국 Berkeley Lab,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신진대사공학을 가속화 5
 - 영국 NHS, 온라인검사기를 활용하여 제2형 당뇨병 위험 확인 5
 - 싱가포르 Doctor Anywhere, 원격진료 사업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대 6
 - 행동과학과 IT기술 발달, 건강증진·예방서비스의 확대를 촉진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FDA, 5개 분야 의약품 4/4분기 인가 검토예정 7
 - 미국 FDA, 29개 AI 기반 의료기기·알고리즘 공식 승인 7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1차 COVID-19 확산에 따른 사망자수 과도 발생 8
 - 독일 정부, 병원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해 30억 유로 자금 지원 8
 - 유럽 Horizon Europe, 암정복을 목표로 13가지의 권고사항 제시 9
 - 중동 지역 화장품 진출전략, 국가별 상이한 지리적·문화적 특성 고려 필요 9
 - COVID-19 백신, 공정 배포와 대중의 신뢰 구축이 필요 10
 - 유전자 편집기술, 과잉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완화시킬 효과적인 수단 10
-



분산화된 임상시험(DCT), COVID-19 확산으로 부각

COVID-19 팬데믹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안전관리가 어려워지고 시험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초 작성한 계획서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임상시험 지속·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전개해 온 임상시험의 과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의료기관 통원에 의존하지 않는 임상시험(DCT)을 검토하는 계기로 작용

[1] DCT의 다양한 장점과 가능성

■ CISCRP¹⁾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임상시험 참가 판단에 의료기관의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약 60%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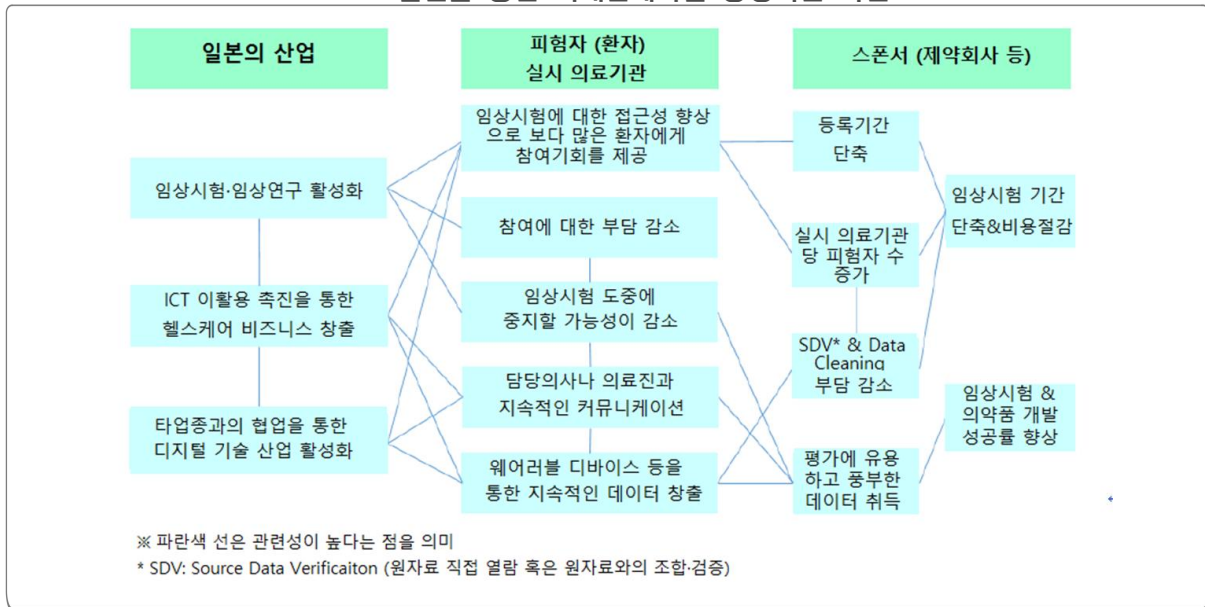
- 일본의 임상치료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시간 부담’ ‘통원 부담’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23.4%, 22.3%로 참여가 부담스러운 이유 중 1,2위를 차지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거리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임상시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통원을 전제로 한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니즈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시 가능한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구축이 필요
- 건강정보를 수집할 디지털 디바이스와 온라인 진료를 결합하면 의료기관 내원에 의존하지 않는 임상시험이나 환자중심의 임상시험도 실현 가능하지만,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참가하는 피험자의 안전성과 데이터 품질의 확보가 필요

* ‘의료기관 통원에 의존하지 않는 임상시험’은 Decentralized Clinical Trial(DCT, 분산화 임상시험), Virtual Clinical Trial(가상 임상시험), Web-based Clinical Trial(웹상의 임상시험), Location Flexible Clinical Trial(장소에 유연한 임상시험)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DCT로 통일

- DCT의 경우, 의료기관 내원빈도를 줄일 수 있어 거리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질환이나 신체장애로 정기적 내원이 곤란해 임상시험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환자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의 참여가 가능
- DCT가 실현되면 스폰서(제약회사 등) 입장에서는 피험자 등록기간 단축과 의료기관 당 피험자 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상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
- 이처럼 DCT 실현은 환자의 임상시험 접근성 향상 외에도 ‘산업’, ‘피험자(환자), 실시 의료기관’, ‘스폰서’별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

1) The Center for Information and Study on Clinical Research Participation

□DCT 실행을 통한 이해관계자별 긍정적인 측면□



[2] 피험자 모집부터 안정성 관리까지 대부분 온라인 진행

■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DCT는 웹상에서 질문지에 답하는 단순한 방식부터 미승인 약을 평가하는 임상시험까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방법이 도입

- 본 보고서는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DCT 실행을 테마로 하고 있어 원격 임상시험이 실시된 '11년 이후를 조사대상으로 DCT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해외사례를 수집
- 그 결과, 총 15개 시험이 검색됐으며 그 중 14개 시험은 미국에서, 나머지 1개는 핀란드에서 실시됐으며 복수의 국가에서 실시된 경우는 없었고 수집된 시험은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스폰서로 참여했고 제약회사가 스폰서인 시험은 4개에 불과
- 피험자 모집에는 온라인 광고, 환자커뮤니티, 메디케어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등이 활용됐고 적격성 확인은 웹상의 응답만으로 완료되거나 바이탈 사인 등 비침습적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고, 담당의사가 소개한 경우는 실시 의료기관에서 적격성을 확인
- 이처럼 임상시험 설명동의 과정 전에 간단한 적격성 확인이 실시되는 배경에는 인터넷을 통한 피험자 모집으로 과거보다 많은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적격 환자를 선별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상호 부담이 적고 이점도 크다는 판단이 작용
- 한편 데이터 수집방법으로는 지정된 웹에 피험자가 직접 입력하는 전자일지 디바이스 형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일정기간 장착해 심전도 기록이나 혈당치를 본인이 직접 측정하는 형태, 온라인 진료를 통해 피험자가 응답하는 형태 등을 확인

* 임상검사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실시 의료기관 외에서 채혈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인근 검사시설에서 채혈하거나 Phlebotomist로 불리는 채혈업무 담당 기사가 피험자 집에서 직접 채혈하는 방식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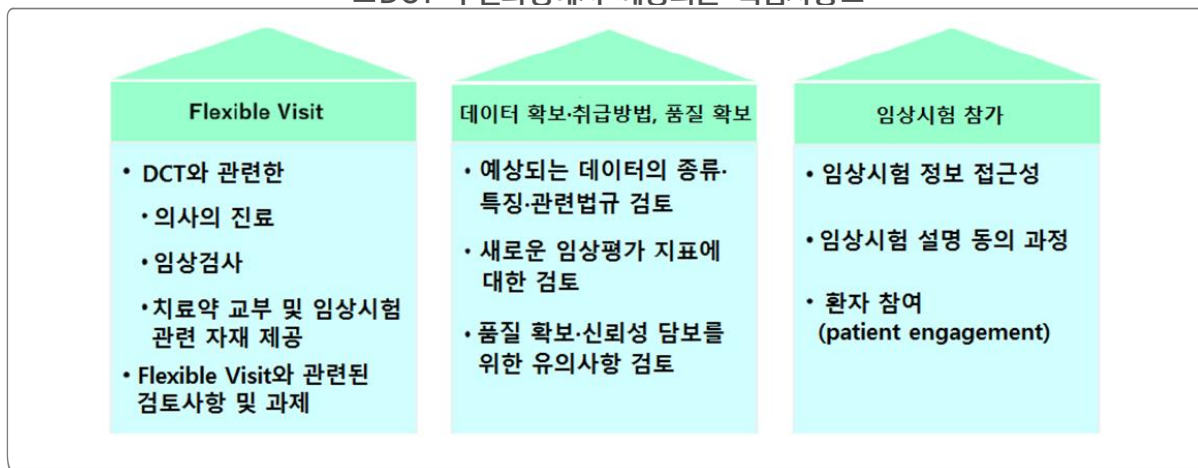
- 피험자의 안전성 관리방법으로는 온라인 진료를 통한 문진, 피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설치된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에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의사에게 이메일이 전달되고 담당의사가 피험자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도 사용
- 임상시험 피험자의 피드백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의료기관 방문 없이 여유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유연성과 의료기관이 멀어도 참가 가능한 점, 피험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보고했을 때 담당의사가 신속하게 전화를 받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답변

[3] DCT는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

■ 해외에서는 '10년대 초반부터 의약품 평가에 관한 DCT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본은 최근까지 DCT 실현을 위한 논의도 거의 없는 상황

- 일본에서 DCT를 실시할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로 DCT 실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3가지 핵심사항으로 정리

□DCT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핵심사항□



- 최근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美 식품의약품국(FDA)과 日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각각 지침과 Q&A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하는 피험자의 안전성 모니터링, 방문간호사 활용, 임상시험약 배송 등을 언급
- DCT는 환자 중심이란 개념에 입각한 대처방안의 하나이며, DCT 실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실시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안심하고 쉽게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
- 향후 의약품 개발에 환자 중심이란 개념이 확대되는 동시에 DCT가 임상시험 방법의 하나로 보급되고, 결과적으로 임상시험 전체의 효율화 및 혁신적인 의약품 창출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

[日本製薬工業協会, 医療機関への来院に依存しない臨床試験手法の導入及び活用に向けた検討, 2020.09.08.]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FDA, 디지털헬스 우수센터 출범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CDRH) 내에 디지털헬스 우수센터(Digital Health Center of Excellence)를 출범한다고 발표

- 모바일헬스(mHealth)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의료기기용 웨어러블, 의료 제품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 등 디지털헬스 기술의 발전에 대한 FDA의 전반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디지털헬스 우수센터를 출범
- 디지털헬스 우수센터는 중앙 집중식 전문 지식과 디지털헬스 혁신가, 일반대중, FDA 직원을 위한 디지털헬스 기술 및 정책에 대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
- 디지털헬스 우수센터는 △기술 조언을 제공하고 △FDA 전체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조정 및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전시키고 △디지털헬스 기기 관리감독을 재구상하여 미국에서 최첨단 디지털헬스 기술을 빠르게 개발하고 검토하기 위해 설립

[FDA, 2020.09.22.]

미국 pfizer, 실사용 증거를 사용하여 Ibrance에 대한 확대 승인 획득

■ 미국 FDA가 유효성의 증거로서 전자건강기록(EHR)과 의료DB의 데이터 분석을 수용함에 따라 '19년 미국 화이자(pfizer)社は 실사용 증거(Real-World Evidence, RWE)를 사용하여 유방암 치료제인 입랜스(Ibrance, 성분명 palbociclib)에 대한 확대 승인을 획득

- JAMA '20년 3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FDA가 '09년과 '18년 사이에 승인한 355개의 신약 및 생물학적 제제 중 63개의 제품당 연구개발 비용이 9억 8,500만 달러라고 추정
-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Fitbits, Apple 시계 및 기타 기기가 생성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임상시험용 RWE를 주시
- FDA는 RWE에 대한 지침을 작성 중이며, '18년 프레임워크는 신약 적응증 또는 승인 후 연구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RWE를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설정했고, FDA는 '21년에 RWE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Managed Healthcare Executive, 2020.09.29.; PRN news wire, 2020.09.17.]



미국 Berkeley Lab,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신진대사공학을 가속화

■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연구소의 과학자들은 ART(Automated Recommendation Tool)라는 합성생물학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신진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을 가속화하는 연구결과 발표

- 미국 캘리포니아의 Berkeley Lab의 과학자들은 ART라는 합성생물학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 두 분야를 병합한 연구결과를 발표
- 연구진은 빵을 발효시키거나 맥주 등 주종을 빚을 때 사용하는 미생물인 효모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Saccharomyces cerevisiae)’를 활용하여 트립토판(tryptophan)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신진대사 공정을 관리하는 ART를 사용
 - * 트립토판은 신경전달물질, 근육, 효소 및 단백질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며 트립토판은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하며 신체에서 생성되지 않는 물질
- 합성생물학은 화장품, 의약품, 백신, 합성 세포, 생물 정보학, DNA 합성, 유전자 편집, 올리고핵산(oligonucleotides), 화학 물질, 합성 유전자 및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Psychology Today, 2020.10.03.; Nature, 2020.09.25.]

영국 NHS, 온라인검사기를 활용하여 제2형 당뇨병 위험 확인

■ 영국 당뇨병협회(Diabetes UK)는 개인이 향후 10년 이내에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레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와 레스터 NHS 트러스트 대학교 병원과 공동으로 온라인검사기를 개발

-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당뇨병예방프로그램(DPP)의 하나인 온라인검사기는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 온라인 검사기는 혈당 감소와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무료 개인 가상헬스코치의 도움을 받아 라이프스타일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인 NHS DPP 디지털 스트림의 일부
 - * NHS DPP(The Healthier You: NHS Diabetes Prevention Program)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16년에 공식적으로 출범
- 이 도구는 나이, 성별, 인종, 가족력, 허리 측정, 체질량지수(BMI), 혈압에 대한 7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하고 점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활습관 변화 또는 개업의(GP) 추천 등의 조언을 제공

[Healthcare Global, 2020.09.07.; NHS England HomePage, 2020.09.07.]

싱가포르 Doctor Anywhere, 원격진료 사업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대

■ 싱가포르 원격진료 스타트업 닥터애니웨어(Doctor Anywhere)社は '15년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년 8월 말레이시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필리핀에 진출할 예정

- 총 활성 사용자 수가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Doctor Anywhere는 개인 헬스케어 위해 의사를 방문하는 개별 환자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회사 직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
- 원격 의료 서비스 외에도 Doctor Anywhere는 싱가포르 전체에 국가보건위기 상황에서 싱가포르 국민의 주요 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립된 8개의 물리적 공공보건준비클리닉 (Public Health Preparedness Clinics, PHPC)을 운영
- Doctor Anywhere는 '20년 8월 말레이시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필리핀에 진출할 예정이며, 지역 확장은 '20년 4월에 발표된 2,700만 달러의 Series B 투자로 자금을 조달

[Business Insider, 2020.09.30.; The Independent, 2020.10.02.]

행동과학과 IT기술 발달, 건강증진·예방서비스의 확대를 촉진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면서 만성질환의 발병 회피를 포함한 '건강증진 및 예방' 노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ICT기기, 센서, 통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술의 활용이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에서 기대를 받는 상황

- 미국의 경우, 밀레니얼 세대는 건강증진·예방에 관심이 높고 45%는 헬스케어 모니터링 등의 기술을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COVID-19를 계기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서비스 시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
- 단 건강증진·예방서비스 사업자는 △만성질환 예비군을 대상으로 질병 위험에 대한 조기 자각을 촉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량적인 유효성 측정·평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낼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해 동기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비침습·비접촉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이나 생활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예측 알고리즘과 비침습·비접촉 모니터링 같은 기술에 인간 행동의 일반적인 법칙을 과학적으로 찾는 학문인 행동과학을 결합해 건강증진 행동을 유도

[三井物産戰略研究所, 2020.09.15.]



4대 보건산업

미국 FDA, 5개 분야 의약품 4/4분기 인가 검토예정

■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년 4/4분기에 Pfizer, Moderna, AstraZeneca, Johnson&Johnson 등 4개 글로벌 제약회사가 개발중인 COVID-19용 백신 등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약 5종을 승인 검토할 예정

- 또한 리제네론(Regeneron)사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REGN-EB3과 아일랜드 바이오제약사 알커메스(Alkermes)사가 개발한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Bipolar I Disorder) 치료제인 ALKS-3831를 승인 검토 예정
- BMS(Bristol Myers Squibb)사가 개발한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 치료제인 리소셀(liso-cel)과 파이브로젠(Fibrogen)사의 만성신장질환 치료제 록사두스타트(roxadustat)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치료제

* 록사두스타트는 최초의 경구용 빈혈치료제는 수십 년 동안 빈혈과 손상된 신장을 가진 사람들은 Amgen의 Epogen 및 Aranesp와 같은 주사형 생약제제로 치료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

[Biopharma Dive, 2020.09.29.; USA Today, 2020.10.08.]

미국 FDA, 29개 AI 기반 의료기기·알고리즘 공식 승인

■ FDA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기기 및 알고리즘 현황에 따르면, 29개의 승인 의료기기 및 알고리즘 중 85.9%는 시판전 신고인 510(K) 승인을 받았으며 12.5%는 드노보(de novo) 경로를 통한 허가, 1.6%는 시판전 승인(PMA)을 획득

- 총 64개의 AI/ML 기반, FDA 승인 의료기기·알고리즘을 식별하였고, 그 중에서 공식 FD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AI/ML 기반 의료기기 및 알고리즘은 29개(45%)에 불과하며, 다른 35개 의료기기의 경우 FDA 이외의 온라인 소스에서 AI/ML 기반 기술로 표시
- AI/ML 기반 의료기기·알고리즘의 최초 FDA 승인은 '16년에 1건(3.4%)이었으며, '17년 말에 3건(10.3%), '18년에 13건(44.8%), '19년 10건 (34.5%), '20년 2월 현재 2건(6.9%)이 승인
- FDA가 승인한 AI/ML 기반 의료기기·알고리즘의 의료 혁신 중 두 가지 주요 의료 전문 분야는 방사선과와 심장과로 각각 21개(72.4%)와 4개(13.8%)이며, 나머지 의료기기·알고리즘(13.8%)은 내과/내분비학, 신경학, 안과, 응급 의학 및 종양학에 초점

[Nature, 2020.09.11.; The Medical Futurist, 2020.09.11.]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1차 COVID-19 확산에 따른 사망자수 과도 발생

■ 영국 의학저널 Heart지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차 COVID-19 대유행시, 급성 심혈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멀리 떨어져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수가 이전보다 과도하게 발생된 것으로 조사

- '14년 1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총 3,450,381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7%는 심혈관 질환과 연관
- '20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85건의 초과 심혈관 사망자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과거 6년 동안의 데이터분석 결과, 평균치에 비해 8% 증가한 수치
-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이전 평균 63%에 비해 53.4%로 적게 나타난 반면, 가정은 23.5%에서 30.9%로, 요양원은 13.5%에서 15.7%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에서는 심장마비나 심부전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요양원에서는 뇌졸중이나 심부전이었고, 병원에서는 폐색전(pulmonary embolism)과 심인성쇼크(cardiogenic shock) 등으로 사망

[Medical News Today, 2020.10.01.; EurekAert, 2020.09.28.]

독일 정부, 병원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해 30억 유로 자금 지원

■ 독일 정부는 병원의 디지털화를 위해 30억 유로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로봇 의료 장비 도입 등을 포함한 병원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독일 보건부 장관 엔스 스파(Jens Spahn)은 독일 병원의 현대화, 디지털화 및 IT 보안 강화를 위해 30억 유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표
 - * 독일 의료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원격의료를 금지하여 디지털화에 뒤쳐져 있었으며, COVID-19로 인해 병원 디지털화의 시급성을 인지
- 독일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는 9월 18일 통과한 병원미래법(the Hospital Future Act, KHZG)초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10월에 발효될 예정
- 독일 병원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원격진료 및 전자 문서 발행, 디지털 약물 관리, IT 보안 강화, 로봇 의료 장비 도입 등의 서비스 제공 가능
 -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 원하는 병원은 '21년 12월말까지 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3년에 병원의 디지털화 상태를 평가받게 됨

[Healthcare IT News, 2020.09.22.; Federal Ministry of Health, 2020.09.22.]

유럽 Horizon Europe, 암정복을 목표로 13가지의 권고사항 제시

■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21-2027)에서 선정한 5개의 미션은 유럽의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중의 하나가 암의 정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13가지의 권장 사항을 제시

- EU집행위원회(EC)는 '30년까지 3백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일관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할 것을 Mission Board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암, 위험 요소 및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13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
- 13가지 권장사항으로는 △유럽 암理解이니셔티브(UNCAN.eu) 출범 △(다중)유전자 위험점수 파악을 위한 EU 차원의 연구 프로그램 개발 △효과적인 암 예방 전략 및 정책 개발 및 이행 지원 △기존 심사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심사 및 조기 감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
- 또한 △맞춤형 의약품 접근법 개발 및 시행 △조기진단 및 최소 침습 치료 △삶의 질 향상 △암 환자 디지털 센터 구축 △암 건강 형평성 △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소아암과 청소년기의 암 치료 △신기술의 혁신과 구현 △암문화, 소통, 역량강화 전환 등을 제안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20.09.22.]

중동 지역 화장품 진출전략, 국가별 상이한 지리적·문화적 특성 고려 필요

■ 중동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Dove, Always로 나타났으나, 국가마다 지리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선호 브랜드가 다소 상이하므로 중동 진출 화장품 업체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신중한 제품 선정이 필요

- 중동에서 구매가 높은 화장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로 정의되며 중동에서 화장품 구매가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공통으로 선호하는 브랜드는 Dove, Always로 나타났으나 지리적, 문화적 차이로 선호하는 브랜드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조사
 - * 사우디아라비아의 5개 선호 브랜드는 Always(생리대), Signal(치약), Dove(비누), Pantene(샴푸), Lux(스킨 클린징)이며, UAE의 5개 선호 브랜드는 Nivea(화장품), Dove(비누), Dabur(헤어제품), Colgate(치약), Always(생리대) 등
- UAE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여 다양한 유통구조로 화장품이 판매되는 반면, 단일문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어, 향후 중동을 겨냥하여 화장품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는 국가별로 상이한 지리적, 문화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
 - * 최근 글로벌 유통그룹 A.W. Watson은 두바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중동 확장 계획을 발표

[Cosmetics design europe, 2020.09.29.]

COVID-19 백신, 공정 배포와 대중의 신뢰 구축이 필요

■ COVID-19 백신을 공정하게 배포하고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 특히 백신 보관 온도, 운송 및 생물 의학 폐기물 처리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 국가는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대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 마케팅 리서치 기업 입소스(Ipsos)가 27개국 20,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4%가 COVID-19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답변
- 글로벌 통계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년 9월 8일 현재, 임상전 시험중인 제약업체는 142개, 임상1상 29개, 임상2상 18개, 임상3상 9개 업체로 집계
-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2를 대표하는 총 156개국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ies)에 가입되어 현재 시설을 통해 백신 접종을 약속하거나 받을 자격을 보유

* 세계백신연합(Gavi), 백신동맹(The Vaccine Alliance),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는 공동으로 정부와 제조업체를 한데 모아 궁극적인 COVID-19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COVAX facilities를 구축

[World Economic Forum, 2020.09.28.]

유전자 편집기술, 과잉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완화시킬 효과적인 수단

■ 유전자 편집의 최근 발전은 농업 및 기타 부문에서 인간활동으로 인해 과잉 발생하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 배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물학적 솔루션이며 대기에서 탄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유전자 편집(gene editing)은 광합성과 같은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을 개선하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간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
-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유전자 편집된 기후 솔루션의 개발 및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권장 사항으로 △안전한 유전자 편집 제품의 개발을 방해하는 비과학적인 규제 부담과 장벽을 제거할 것을 제안
- 또한 △유전자가위(CRISPR)도구의 발전, 광합성 강화, 토양 탄소 측정 방법 개선과 같은 R&D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를 확대 △전 세계 기존 R&D 노력을 개선 △새로운 유전자편집기술의 신속한 채택을 촉진할 인센티브의 확대 등 4가지 주요 권장 사항을 제안

[ITIF, 2020.09.14.]